

“비파우더 의료용 장갑 사용해야”

식약처 권고사항 ... 알레르기·염증 등 유발 위험 경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우더가 포함된 의료용 장갑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 또는 진단 시 비파우더 장갑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파우더가 포함된 천연고무 라텍스 장갑을 사용할 경우 파우더가 라텍스의 단 백질과 결합해 장갑을 쓰거나 벗을 때 공기 중에 비산돼 의료인과 환자에게 라텍스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수술 또는 진단 시 파우더가 수술부위나 인체 내부조직에 흡착될 경우 염증, 유착, 육

아종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흡입 시 기도염증 등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의료기관 및 의료진에게 비파우더 장갑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파우더 장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술 또는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무균적인 방법으로 파우더를 제거한 후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단 라텍스 알레르기 환원은 파우더에 의해 공기 중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수술실 인의 환자 또는 의료진에게 라텍스 알레르기

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용하라는 말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파우더 장갑 사용 관련 의심되는 이상사례 등을 인지하는 경우 식약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경우 의료인의 약 93%가 비파우더 장갑을 사용하고 있으며, FDA(식품의약품)에서 파우더 장갑에 대한 미국 내 사용금지를 연방정부에 제안했다.

주혜진 기자 hjjo@

환자 - 의료인 안전 위해 ‘비파우더 의료용 장갑’ 착용 천공 등 위험 대비 장갑 ‘이중착용’ 안전

“환자와 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비파우더 의료용 장갑을 사용하고, 이중착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병원수술간호사회(회장·양진기)는 ‘수술 안전간호를 위한 세미나’를 열어 의료용 장갑에 사용된 파우더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 안전한 의료용 장갑 선택에 대해 논의했다. 정삼미 안셀코리아 교육담당자가 주제발표를 했다.

의료용 장갑은 병원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개인보호장비(PPE)이며, 세균과 바이러스의 직접 접촉 위험성이 큰 손을 지켜주는 보호막이다.

의료용 장갑에는 끼고 벗기 쉽도록 옥수수전분 소재의 파우더가 첨가된다. 그러나 파우더에 따른 부작용이 여러 논문과 사례를 통해 보고됨에 따라 비파우더 장갑 사용이 권고되고 있는 추세다.

파우더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 보호능력을 약화시킨다. 파우더가 수술부위나 인체 내부조직에 흡착될 경우 염증, 유착, 육아종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상처치유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다. 파우더 입자가 암으로 오진될 가능성도 있다. 흡입 시 기도염증 등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파우더는 라텍스 알레르기 유발항원의 매개체가 된다. 파우더가 포함된 천연고무 라텍스 장갑을 사용할 경우 장갑을 끼거나 벗을 때 파우더가 공기 중으로 퍼지거나 의료인과 환자에게 라텍스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다.

정삼미 교육담당자는 “비파우더 장갑으로 교체 후 라텍스 관련 질병의 보고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고됐다”며 “안전한 장갑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파우더 유무와 소재를 확인하고, 제조원에 Fit-Kit Test 검사결과 등 사용 용도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것”을 권했다.

특히 “파우더 없이도 끼고 벗기 수월하게 만들어진 의료용 장갑이 판매되고 있다”면서 “비파우더 장갑 사용은 의료인과 환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수술 후 합병증, 감염 등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비용적 이익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의료용 장

갑의 이중착용(Double Gloving)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자상이나 마찰 등에 의해 장갑에 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중착용이 안전하다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중착용할 경우 천공 발생률이 71%, 환자 혈액에 노출되는 위험성이 최대 87%까지 감소했다.

이중착용 시에는 색상이 서로 다른 장갑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내부장갑을 어두운 색으로 착용할 때 천공 시 발견할 확률이 높다.

정삼미 교육담당자는 “올바른 의료용 장갑 사용을 위해 장갑 착용 전 손을 잘 건조시키고 장갑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날카로운 기구 사용이 많거나 오염위험도가 높은 수술 시에는 장갑을 이중으로 착용하고, 수술이 90분 이상 지속되거나 천공 또는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 장갑을 즉시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갑을 제거할 때는 표면에 묻은 유해물질을 주변에 튀지 않도록 조심해서 벗고, 바로 손 위생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

전남간호사회 역대 회장 간담회

전남간호사회(회장·장영숙)는 역대 회장 간담회를 최근 개최했다. 최명성·김정란·박진영·안채순·정광숙 전 전남간호사회회장이 참석했다. 현 전남간호사회 장영숙 회장과 김기업 제1부회장, 최인숙 제2부회장이 함께 자리했다.

장영숙 회장이 전남간호사회가 올해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하고 고견을 들었다. 간호계 현안과제를 짚어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간호사회 회관 이전 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장영숙 회장은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켜봐주고 격려해주시는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면서 “간호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숙현 기자 shkim@

충북간호사회 ‘사랑의 김장나누기’ 봉사

충북간호사회(회장·한명자)와 괴산군간호사회(회장·박인숙)는 괴산군 내 불우이웃을 위해 ‘나이팅게일 사랑의 김장나누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회원들은 정성을 다해 절임배추 1000kg으로 맛있게 김장을 담갔다.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 35가구와 괴산군 내 11개 지역아동센터, 요양원 등에 전달해 편안하고 행복한 겨울을 나게 도움을 손길을 보냈다.

한명자 회장은 “나이팅게일 정



신으로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고 나누며, 지역사회로 관심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간호사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

강원도간호사회 회원 화합 프로그램

강원도간호사회(회장·손혜숙)는 회원 화합 프로그램을 11월 12일 정선에서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으로 마련됐으며, 회원 130여명이 참석했다.

회원들은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정선아리랑극-관아리랑’ 공연을 관람하고, 전통시장을 둘러봤다.

회원들은 “우리 옛것의 정취를 느끼며 심신을 재충전하고, 동료



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손혜숙 회장은 “회원 화합 프로그램을 통해 여유를 되찾길 바라며, 앞으로 일하는 데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정신간호사회 ‘중독정신간호사 교육’ 수료식

정신간호사회(회장·김경희)는 2016년도 제4기 중독정신간호사 교육 수료식을 11월 12일 개최했다. 1급 교육과정 36명, 2급 교육과정 12명이 수료했다.

중독정신간호사 교육과정은 알코올, 마약, 도박 등 다양한 중독의 예방 및 전문적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설 운영됐다. 교육은 4~11월 매주 토요일 진행됐다.

1급은 이론교육 40시간 및 사례관리 발표 20시간, 2급은 이론교육 70시간 및 중독관련기관 실습 40시간으로 구성됐다.



정신간호사회는 2013년부터 매년 중독정신간호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수료생을 포함해 총 1급 744명, 2급 45명을 배출했다.

김경희 회장은 “회원들의 전문역량 강화와 역할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서울시간호사회 회관 리모델링

서울시간호사회(회장·김소선)가 회관을 리모델링했다. 역대 회장과 원로, 현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관 오픈하우스를 11월 23일 개최했다.

김소선 회장은 “회관 건립 27년 만에 전면적인 내부 리모델링을 실시했다”면서 “편리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휴식을 쉴 수 있도록 회원 중심의 회관을 만드는 데 힘썼다”고 말했다.

특히 회원 교육이 이뤄지는 5층 강당 리모델링에 중점을 뒀다. 뒤쪽 좌석을 시야확보가 용이한 계단



식으로 개조했으며, 조명을 LED로 교체했다. 음향 등 교육기자재를 최신시설로 교체했다. 사물함과 휴대전화 충전기기를 구비했다. 3층에 회의실을 새롭게 마련했다.

김숙현 기자 shkim@

강원도 춘천시간호사회 주민 심폐소생술 교육

강원도간호사회 산하 춘천시간호사회(회장·손은진)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최근 춘천상상마당에서 실시했다. 강원도간호사회가 지원했다.

춘천시간호사회 회원 22명이 참여했으며, 지역주민 240여명이 교육을 받았다. 특히 가족동반으로 참여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교육은 지역주민들에게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한림대춘천성심병원으로부터 성인마네킨과 소아마네킨,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 교육 준비를 지원받았다.

최수정 기자 sjchoi@

보험심사간호사회 ‘진료비관리 패러다임 전환’ 세미나

보험심사간호사회(회장·손순이)는 ‘IT를 기반으로 한 진료비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주제로 2016 Korea Health Congress에서 보험심사분과세션을 11월 18일 개최했다.

손순이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3편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전귀는 분당서울대병원 보험심사팀장이 ‘스마트 베드사이드 스테이션(SBS)’을 소개했다. SBS는 환자가 침상에 설치된 스마트 기기를 통해 입원생활정보와 검사일정·검사결과·진료비내역 등을 볼 수 있는 서비스다.



서지연 서울아산병원 적정진료팀장이 환자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한 재원일수 관리에 대해, 최은정 인하대병원 진료기획팀장이 병원 적정성 평가 시 사용하는 ‘온라인 평가자료 제출시스템’에 대해 발표했다.

김숙현 기자 shkim@

사업장 보건관리자 전국대회 개최

2016년 보건관리자 전국대회가 최근 열렸다. 산업간호사회(회장·정혜선)와 안전보건공단 등 5개 기관이 공동주관하고, 고용노동부가 후원했다. 전국 기업체 보건관리자 및 보건업무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사업장 보건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기업건강증진지수 도입을 통한 근로자건강증진 활성화 방안’ 등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산업간호사의 사업장 보건관리 우수사례’



등이 발표됐다. 포스코 사업장을 견학하고, 포스코 글로벌 안전센터에서 심폐소생술 실습과 화재대비체함을 했다.

주혜진 기자 hjjo@

28년 전통 대방열림고시학원

기술직 공무원 (간호직) (보건직) (보건진료직) (의료기술직) 국가면허시험 (간호사국가고사) (위생사) 연세대 RN-BSN

최다합격자 + 입소문 · 합격생이 적극 추천하는 기술직 명문 학원



2016. 11월 대방열림고시학원 직강 현황 모습

- ★ 대방열림고시학원의 강점 ★
- 과목별 수험생 선호도 1위 교수진 구성
- 매년 기술직 공무원 최다합격자 배출
- 수강생이 가장 많고 입소문으로 유명한 학원
- 학원직장을 그대로 촬영한 최신 동영상 강의
- 최고의 시설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
- 최신 스마트폰 동영상 강좌 시스템
- 체계적인 시스템 및 학원직장 연중 무휴단 진행

매일 초개강 / 수시등록 가능 / 학원강의 연중 순환식 진행
이론반 > 심화반 > 기출문제반 > 단원별 · 모의고사 문제풀이반

2017 연세대 RN-BSN

오직 연세대학교 RN-BSN을 위한 특화된 강의로 동영상 강의 진행중
RN-BSN·간호사 국가고사 전문 카페 '천사랑' http://cafe.naver.com/10rang04